| 타이틀 | 01. 이루리, 일정을 예측하다 |
|---|---|
| 배 경 | A상사 영업팀 |
| 등장인물 | 이루리: 20대 남<br>황대리: 30대, 이루리 사수<br>과장님: 40대, 상사 |

**시놉시스**

수출입 상사에 다니는 이루리는 과장님이 미국 출장 때 가지고 가야 하는 제품 샘플을 챙기는 일을 맡는다. 그런데 샘플 하나가 제작기간이 더 필요해서 과장님 출장날짜에 맞추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다. 이루리는 며칠이 더 필요한지 계산하기 위해 업체 제작기간과 배송기간, 내부 검수시간을 계산해 보고한다.

이루리와 황대리는 과장님의 미국 내 두 번째 출장지인 LA에 도착할 때 호텔로 샘플을 배송해서 과장님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 이동시간과 호텔 체류시간, 배송소요일을 추측한다.

그리고 추측한 날짜와 시간들을 합쳐 모두 며칠이 필요한지 계산한다.

배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황대리는 루리에게 배송을 확인하라고 하고 루리는 해외시차를 계산해 과장님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보고한다.

이루리는 차질 없이 배송하기 위해 업체에 최소한 언제까지 제작해야 하는지 마감시한을 정해 통보한다.

**대 본**

**#1 이루리, 일정을 예측하다.**

**#2 아침, 사무실 이루리 자리**

아침, 가방을 멘 이루리가 배송 받은 박스를 들고 출근한다.

아직 팀원들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가방을 두고 박스 안에서 제품(화장품이나 미용도구 또는 슬리퍼 같은 간단한 제품으로 중소기업 수출품 같아 보이는 품목)을 꺼내 이리저리 살펴본다. (근처에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는 맨 끝 자리 느낌)

심각한 이루리 얼굴 옆에 텍스트로 소개 나온다. 그때 전화벨이 울려 전화 받는 이루리

루리　네, 보내주신 샘플 잘 도착했습니다. A타입 수량 확인했고 디자인 수정도 잘 반영된 것 같네요. 품질팀에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B타입은 오늘 언제 나오는 건가요? 내일 과장님께서 LA로 가지고 가시려면 저희도 빨리 검수하고 포장해야 해서요…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변하며) 기계… 고장이요? (놀라서) 내일 아침 10시 완료요?

그때 황대리가 출근한다. 그리고 바로 박스 안에서 샘플을 꺼내 살펴본다.

황　아, 샘플 왔군요. (살펴보며) 어디 보자~~

전화하던 이루리가 황대리를 휙 돌아보며 전화기 손으로 막고 말한다.

루리　(당황해서) 황대리님! 어쩌죠? B타입 오늘 못 나온대요!
황　그게 무슨 소리에요? 분명히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루리　어제 밤에 기계가 고장 나서 수리 중이라고요, 오후에나 작업 재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황　그럼 언제 완료된다는 말이에요?

*순간, 머리 속으로 계산하는 이루리 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속생각*

*루리　업체에서 10시에 완료. 인천공장에서 여기까지 퀵서비스로 배송하면 2시간 추가, 품질팀 검사시간 긴급으로 처리해서 2시간 추가…*

루리　업체에서 10시에 완료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긴급하게 배송하고 품질팀 검사 긴급으로 처리해도 오후 2시는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황　(지끈거리는 머리 누르며) 전화 저한테 주세요. (루리한테 전화 받아서) 안녕하세요, 고부장님. 저 황대리입니다. B타입이 내일 아침 10시에 끝난다고요? (상대편 설명 듣는) 하아… 저희 과장님 내일 9시 반 출국이에요. 미국으로. LA에서 바이어들 만나기로 다 되어 있는데 샘플 없으면 어떡해요. 정말 다른 방법 없어요? (상대편 얘기 듣다가) 항공특송이요? 진짜 5일이면 배송된다고요?... 하아… 일단 내부에서 의논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B타입 빨리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 끊고) 아~ 큰일났네~

루리　미국으로 직접 보내겠다는 거에요?

황　자주 이용하는 항공특송이 있는데 확실하다고… 5일 후면 언제죠?

루리가 책상 달력을 가지고 온다.

루리　(달력에 표시하며 날짜 계산한다.) 내일이 24일이니까요 내일 배송해서 5일… 중간에 주말이 껴있는데 주말 빼고 5일인 건가요?

황　포함해서요. 영업일로 3일, 주말포함 5일.

루리　진짜 그게 가능하다면 29일 일요일에는 샘플이 LA에 도착한다는 말이네요. 아, 한국시간으로요. 미국시간으로 하면… (머리 속으로 계산하며) 미국 서부랑 우리나라는 17시간 차이니까…

황　어, 요새는 16시간 차이로 계산해야 해요. 서머타임이라.

루리　서머타임이요? 한 시간을 당겨서 쓰는 거요?

황　네. 3월 두 번째 일요일 오전 2시에 3시로 시작해서 11월 첫 번째 일요일 오전 2시에 다시 1시가 되죠. 그래서 시차에서도 1시간을 빼야 해요. 10월 말은 아직 서머타임이니까 LA, 미국 서부랑은 17시간에서 16시간 차로 줄고, 미국 동부와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차이로 줄죠.

루리　아, 그럼 16시간 차이로 계산하면…

*멈칫하는 루리 얼굴에서 화면 스톱, 속생각*

*루리　LA에서 밤0시면 한국은 그날 16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9일 일요일 4시까지는 LA에서 28일 토요일이라는 말이지.*

루리　네. 29일 오후 4시까지는 LA에서 28일이니까 토요일에 도착할 수도 있겠네요. 주말이니까 현실적으로 30일 월요일에 받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의심스럽게) 그런데 정말 그게 될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 되면…

황　큰일 나는 거죠. 30일에 과장님 일정은 어떻게 되는 데요? 과장님 일정표 있죠?

루리　네.

루리가 책상 위 서류 뭉치에서 프린트 하나를 빼온다.

루리가 자리에서 달력과 일정표를 가져오면 이루리가 일정표를 보고 있고 황대리가 달력에 체크해나간다. 화면 반이 갈리면서 달력이 나오고 음성에 맞추어 체크가 된다.

루리　(일정표 보면서) 네. 24일에 도착하시면 27일까지 박람회 일정이십니다.

황　24일? 내일? 아~ 일정표가 다 미국 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루리　네. 미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11시 45분 도착이래요.

황　(머리 속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황대리 옆에서 계산하는 루리 표정에서 화면 멈추고 속생각*

*루리　우리나라 시간에서 16시간을 빼면 LA시간이니까 반대로 미국시간에서 1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 27시 45분… 즉, 하루 지난 3시 45분.*

루리　다음 날, 그러니까 25일 새벽3시 45분이네요..

황　(핸드폰으로 세계시간 검색하는 중, 검색하고 숫자 넣고 하느라 루리보다 느리다. 3시 45분으로 뜨는 화면 보여주며) 오, 맞네요.

루리　(일정표 보면서 달력에 체크) 30일은 시장조사 31일부터 현지 업체 방문 및 바이어 미팅이니까 LA에서 월요일에 샘플을 받으신다면 문제는 없는 거죠.

황　(고민하며) 그죠… 귀국은 11월 3일이니까… 아아~ 어쩌죠~ 상무님까지 가시는데 샘플 하나 딱딱 준비 못해놨다고 뭐라 하시면 어쩌냐고요~

루리와 황대리가 고민하는데 뒤로 과장님이 출근한다.

과장　굳모닝~ (눈치보며)이 아닌가? 왜요?

그제야 펼쳐진 박스 보고 루리와 황대리 보는 과장님

**#3 과장님 자리**

잠시 후 과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과장　30일에 LA에서 받으라고요?

황　네.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기는 합니다. 소량이고 해서 통관에 딱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5일만에 가기는 했었습니다.

과장　내일 몇 시에 나온다고 하던가요?

루리　(황이 이루리를 보면) 아, 제품 완료는 10시라고 합니다.

과장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서 품질팀 검사 해야 하잖아요.

루리　네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퀵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체가 인천이니까 여기까지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품질팀에 긴급 검사로 요청하면 2시간 정도 더해서 오후 2시 정도에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과장　오후 2시… (고민하며) 내가 내일 9시 반 비행기인데… 그건 어렵겠네요.

루리　네.

고민하는 과장님과 눈치 보는 황대리와 이루리

과장　아… 황대리.

황　네

과장　기획팀에 전화해서 하부장님 출국시간 언제인지 알아봐요.

황　하부장님이요? 같이 출국 안하세요?

과장　하부장님,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오후에 따로 출발하실 거에요. 하부장님 비행기 시간에는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황　(반갑게) 아, 네!

**#4 이루리 자리**

전화를 하면서 황대리가 다가온다.

황　(활기차게) 네. 결정되면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끊고 이루리에게) 기획팀에 확인했어요. 1시 40분 비행기래요. 12시까지 공항에서 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제가 품질팀이랑 아침 일찍 가서 나오는 대로 검수를 하면 검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퀵으로 보낼게요. 루리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서 하부장님께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가서 품질팀에 협조 요청할 테니까 루리씨는 업체에 그렇게 진행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루리　네. (황대리 다시 바쁘게 나가면 바로 업체에 전화한다.) 네, 부장님! 이루리입니다. 다행히도 LA로 가는 다른 임원분 출국 시간이 오후 1시 40분이라고 하네요… 네. 그 분 편에 보내려고요.

고부장　(전화 너머로 목소리만) 아, 다행이네요! 그럼 B타입 완료는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

*순간 루리 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속생각*

*루리　샘플 완료 시간? 12시에서 퀵 서비스 배송 시간과 검수 시간을 빼면 되겠지?*

루리　아, 검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릴 거구요. 그곳에서 인천공항까지 퀵서비스는 얼마나 걸릴까요?... 아, 그럼 1시간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럼…

이루리가 직선에 아래 같은 표를 그려가면서 필요한 시간을 역으로 계산한다.

루리　9시 반~ 10시 정도에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고부장　(목소리만) 아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추겠습니다!

루리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황대리가 뛰어 들어온다.

황　(루리가 전화 끊자마자 바로) 품질팀 허락 떨어졌어요. 업체는? 된대요?

루리　네.

황　하아, 됐다. 자 이제 내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봅시다. 일단 저랑 같이 가서 샘플 포장을 해보죠..

루리　네!

바쁘게 사라지는 황대리와 이루리